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돌봄 전담사 채용과 파업

초등학교에는 담임교사가 있고 방과 후 돌봄 전담사가 있는데 이들은 시·도교육청 노동 정책과에서 채용해 교당1명 이상 발령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부모가 가정에서 돌봄 여건이 부족한 지역 학교는 인원수를 추가 요청해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돌봄 전담사는 돌봄 교실에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공무 직분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시도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돌봄 전담사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288(돌봄 전담사 157, 시간제 돌봄 전담사 131)명이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학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으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있다.

발령받은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이동되며 만 60세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신분보장을 하고 있으며 보수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근속 수당을 받고 있다. 채용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은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응시에 합격하면 학교에 배정받아 교사처럼 보장이 되어 노동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돌봄 전담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제 근무를 전일제로 할 것의 근무 조건개선과 봉급인상조건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육청이 돌봄 전담사 제도를 민영화하려는 데도 반기를 들고 있다.

민영화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6일에 전국적으로 파업을 단행했으며 12월 24일 2차 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 돌봄 노조,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해 돌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돌봄 전담사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연합회는 파업 유보 중단, 관련법안 마련, 돌봄을 위한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의 협조 등을 촉구했다.

복지사외 차원에서 방과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린이를 학교에서 돌봐줄 인적 자원이 필요

하기 때문에 생긴 돌봄 전담사 채용제도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노동쟁의를 하는 것이다.

애초에 대부분의 학부모에게 초등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의 연장선일 뿐이다.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만족도도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거지 돌봄 전담사를 한 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돌봄 전담사들은 마치 돌봄 교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학부모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양 호도하고, 이걸 파업의 도구로 삼고 있다.

사실 돌봄교실의 목적 자체가 학부모 입장에서 애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건 불안하거나 싫고, 그냥 자기를 퇴근할 때까지 애들 시간이나 잘 때우라는 이상의 용도를 찾을 수가 없지 않은가? 돌봄 전담사들이 하는 일이란 애초에 정해진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없는, 교실에서 그냥 TV 틀어주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놀이자료랑 색연필을 갖다줘서 애들이 '가만히 있지만 않

게 만들고 있으면 애들한테 신경 안 써도 무방하고, 간식 갖다주고, 하교시키면 그게 끝 아닌가?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돌봄 전담사는 한 명도 없을 거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애초에 돌봄 전담사와 돌봄 교실의 존재 목적이 그거다.

문제는 그런 노동을 돌봄 전담사들이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일부 등교한 학생에 대해 학교 돌봄 전담사 파업으로 그에 따른 업무를 교사들이 봉사활동으로 맡고 있다 한다.

교직을 성직이라 하는 것은 보수와 대가에 연연하지 않고 제자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기 때문인데 교육 공무직에 몸을 담은 신분으로 이권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은 환영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 정부와 교육청 당국도 반성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찾아오는 불청객 '블랙아이스'

날씨가 영하권으로 추워지고 곳곳에서 첫눈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산타처럼 몰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블랙아이스다. 도로 위에 있는 듯 없는 듯 몰래오는 블랙아이스는 지난 겨울 1월 6일에는 경남 합천 국도에서는 40여대를 추돌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코로나 19로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한해 끝자락에서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블랙아이스는 도로에 검은 코팅을 한 듯 얇게 얼어붙은 얼음이 다.

눈이 온 후 낮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도로에 스며든 경우와 제설을 위해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여 수분상태로 도로에 스며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분들이 그늘진 도로, 해안도로, 터널 등 응달진 곳에서 매년과 먼지가 엉켜 붙어 생긴다.

응달진 곳과 추운 곳을 피하더라도 기온이 떨어지는 밤, 새벽시

간대에 생기기도 한다. 차를 타고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 어디서든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으며 도로 위에서 발견하기 힘든 검고 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운전하기 전 기상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2. 겨울철 항상 감속 운전 및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를 한다.
3.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등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다.
4. 응달 교량, 고가도로, 터널 등 진입 시 서행 및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

5. 급정거한 차량이나 미끄러지는 차량이 보인다면 브레이크 조작을 최소화하고 기어조작을 통해 엔진브레이크 또는 베기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서행해야한다.

6. 블랙아이스가 아니더라도 차량이 미끄러진다면 급격히 핸들을 조작하지 말고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차량을 조작해야 한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철 교통사고는 다량의 충돌 사고로 이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스노우 타이어로 미리 교체하거나 스노 체인을 준비하는 것도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다. 민원민/화순소방서동북119안전센터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